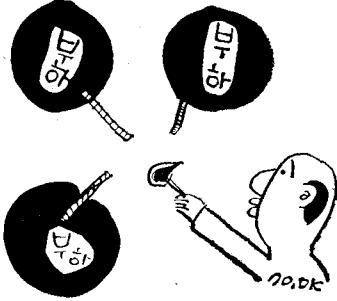


기업양계의 인력관리

김 영 옥

<한국가금협회 총무부장>



부하를 완전히 태워라.

여섯번째로 간부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자기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부하들로 하여금 회사나 농장의 일이 회사의 일인지 자기의 일인지 분간을 못 할 정도로 완전히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바쳐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간부의 사고방식이나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또 부하를 완전히 연소시킨다는 것은 부하의 입장에서 보면 혹심한 착취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왜냐하면 불완전 연소된 부하들은 항상 자신을 완전히 태우지 못했기 때문에 (즉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이 불만이 쌓이게 되면 결국 직장을 옮기게 된다. 그래서 몇번 직장을 옮기다 보면 결국 아무 곳에서도나 완전 연소는 어렵고 항상 불평 불만이나 터뜨리는 『골치사원』이 된다. 반대로 어느 곳에서도나 자신을 완전 연소시키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킨다면 그것은 하나의 습성처럼 몸에 붙게 되어 다음에 어느 곳으로나 직장을 옮긴다 하더라도 완전히 연소시키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게 되어 한번 일을 맡으면 끝까지 해 내고 달성감을 맛 보고서야 비로써 다음 일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 목표 지향력
- 방법 발견력
- 조직력
- 판단력
- 전달력
- 연소력

C농장 서비스부(部)의 김부장

C농장의 서비스부는 그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판단, 거의 적중하는 예상, 또한 철저한 아후터 서비스등으로 양계가들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 농장은 부화장, 사료공장, 도계장, 양계장을 겸하고 있는 종합양계장이다.

C농장의 서비스부에 대한 평판은 다음 사실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

F부화장에서 병아리를 가져간 양계인도 만약 병리관계나 시장상황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C농장의 서비스부를 찾는다는 식이다. C농장의 서비스부는 꼭 C농장의 병아리나 사료를 가져간 사람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양계인이 라면 누구나 친절히 서비스에 응한다. 다음 육추시에 F부화장의 병아리대신 C부화장의 병아리가 그 양계인에게 들어 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까지에는 김부장과 서비스부원(部員)들의 약 1년간에 걸친 자신을 완전히 바치다시피한 노력이 있었다. 맨 처음 김부장이 서비스부를 맡았을 때는 서비스부대에는 가장 필요한 기초조사도 되어 있지 않았다.

비교적 규모가 크다는 C농장의 서비스부가 그 모양일 때 국내 다른 농장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김부장은 우선 인사문제의 실권을 잡았다. 서비스부의 부원들은 김부장 자신이 직접 스카우트해 왔다. 양계업계의 정보라고는 거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업계의 동향에 관해 제일인자가 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젊은이들을 모집하여 3명에게 각각 산란계 및 부로일러의 시장 상황에 관하여, 사료에 관하여, 질병 및 일반관

리에 관하여 분야를 정하여 주고 자기 분야에 필요한 설문 100가지를 설정하여 주고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명의 부원이 약 3개월간에 걸친 기초조사 끝에 어느 정도의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자 김부장은 각 부원에게 거래하는 각 양계장방문을 지시하였다. 단 A라는 부원이 매달 첫주 화요일 1시경에 B라는 양계장에 가게 된다면 그후 약 1년간 A부원의 B양계장 방문시간은 항상 매달 첫주 화요일 1시경이 되었다. 이 시간관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서비스부의 생명처럼 여기도록 되었으며 천재지변이 없는 한 거의 고정적으로 지켜졌다. 이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자면 시간관념이 별로 없는 모 양계장의 주인은 A부원이 양계장에 들어서게 되면, 『아— 벌써 이번달의 첫주 화요일 1시경이 되었나?』하고 생각할 정도로까지 되었고 이제 C농장의 서비스부원이 오는 시간에는 외출이나 일체의 약속을 연기하고 서비스부원을 기다리게 되었다. C농장의 서비스 부원은 항상 정확한 시간을 지킨다는 생각을 양계인이 가지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곧 C농장의 업계정보 및 예상은 항상 정확하고 성실하다는 인상으로까지 파급되었고 이것은 곧 C농장의 병아리와 사료는 항상 우수하고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으로까지 비약이 되었다. 이것은 한 농장의 서비스부가 농장 전체의 운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 하는 실례를 보여준 것이지만 그 밑바닥을 살펴보면 김부장과 그 부원들의 열성적인 노력과 김부장의 부원에 대한 처우문제나 부원에게 불을 붙여 부원자신을 일애다 완전히 자신들을 태워버리는 큰 힘이 있었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첫째 김부장은 부원에게 항상 부원자신이 하는 일은 국내에서 부원자신을 빼놓고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고 심지어 부장 자신이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양계장의 상담이 있을 때에는 항상,

『아! 그 문제라면 이 분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A부원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럴때 부원은 『부장이 나보다 높긴 하지만 역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국내에서 최고다』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처우문제도 봉급은 C농장의 생산부문과 같은 수준이지만 부장자신에게 지급되는 접대비 등은 부장 본인자신은 별로 쓰지 않고 항상 설함에 준비해두고 만약 근무시간이외에 부원이 출장다녀온다면 그 부원에게 『이것은 사장님이 전해 주라는 거야 받아 뒤』하면서 지급하곤 했다. 그리고 부원의 생일이나 기념할 만한 날에는 부장자신이 꼭 사장의 이름으로 부원에게 조그마한 선물등을 기증하곤 했다.

이것은 별로 큰 것은 못되었지만 부원들의 사기를 올리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항상 부원은 자기의 노고나 수고를 사장과 부장이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른 농장에서 C농장의 서비스 부원을 스카우트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가령 그것이 아무리 높은 봉급기준과 좋은 대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자기를 진실로 알아주는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그곳이 아무리 나쁜 곳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항상 자신을 꼭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좀처럼 떼치고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다(가령 인간이 고양이나 개라면 더 따뜻한 곳 더 큰 뼈다귀가 있다면 뛰어가겠지만 인간은 역시 인간이기 때문이다).

● 나는 어떤 간부일까?

- 나는 부하의 하는 일에는 간섭은 심한 편이며 부하의 신상문제 등은 잘 모르고 있다.
- 간섭은 별로 안하는 편이지만 신상문제는 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신경쓰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 부하의 하는 일에는 필요한 때에만 간섭을 하되 될 수 있는 한 부하의 사기를 꺾지않는 방법으로 나가며 신상문제에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할 때에는 같이 기뻐하거나 걱정해 주는 편이다.

부하에게 불을 붙이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하를 완전 연소시킬까, 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옛날식과 현대식 간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간부의 출근시간이 문제다. 간부는 아침에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저녁에는 누구보다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 머리의 회전속도는 부하보다 2배정도 되어야 한다. 요즘은 어느 농장이나 간부급들이 일찍 출근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다. 이유는 간부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니 아침에 늦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어느 간부는 이런 얘기도 한다. 『간부가 너무 빨리 나오면 부하가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부하가 일찍 나온다는 것은 불쌍하다는 얘기같은데 이것은 시대착오이다. 요사이 부하들은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더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은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고 부하들에게만 출퇴근시간을 지키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 입밖내 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에서 그들이 품고있는 생각이다. 간부는 적어도 출근시간 30분전에 출근하여 그날 일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부하들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전날밤 11시나 12시에 퇴근했다라도 이것은 마찬가지여야 한다. 육체적으로 힘들면 차라리 일찍 출근하고 퇴근시간을 조정하는게 더 낫다. 부하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부장, 과장이 먼저 출근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만 『앗차』하고 생각한다. 간부와 부하의 상식의 차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간부의 책상이다. 옛날에는 간부는 따로 방을 하나 차지해서 모든 일은 부하가 가지고 들어와야만 처리가 된다고 생각해 왔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간부로서의 위엄이 섰다고 생각했다. 간부로서의 위엄은 부하보다 더욱 열심히 일하고 부하보다 더욱 사려깊고 더욱 넓은 여유를 가지고 있을 때에야만 부하에게 존경과 위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하와 다른 방을 씌으로써 부하와 격리되어서 비로소 위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은 옛날식 사고방식이다. 진실로 위엄을 나타내고 존경을 받으려면 부하들 틈바구니에 파고 들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방을 쓰면 부하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 항상 부하와 같이 일을 하면서 진두지휘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다른 방에 앉아서 부하의 보고서나 읽고서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간부의 틀린 자세이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일터는 인간과 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인데 보고서는 일은 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 만일 간부가 부원 전체의 활기를 기대한다면 먼저 자신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협력하고 설득하면서 부하들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면서 태풍(일)의 중심속에서 태풍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 나는 어떤 간부일까
- 나는 부하와 다른 방에 격리되어 있으며 출근은 항상 부하보다 늦고 퇴근은 빠르다.
- 부하와 같은 방에 있으나 출퇴근만은 부하와 같지 않다.
- 같은 방에 있으며 출근은 먼저 퇴근은 늦게 한다

□□

월간 양계 구독안내

월간양계지는 이제 16페이지의 증면을 단행하여 한층 여러분께 많은 내용을 알려드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월간양계를 구독하시려는 분은 하기의 금액을 소액환으로, 혹은 직접 한국 가금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분 : 1,000원

반년분 : 600원

보낼곳 :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8~11 한국가금협회.